

No.2015100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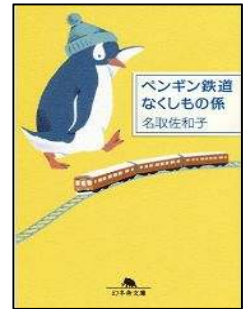
제목: 펭귄철도 분실물 센터

저자: 나토리 사와코

페이지수: 353

장르: 소설

출간일: 2014년 06월 10일



<내용소개>

분실물 센터의 펭귄을 만나면 자신 안에 숨어있던 중요한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스런 펭귄의 모습에 치유 받으며 긍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소설

사람들은 수 많은 것을 잃어 버리고 그 물건을 찾기도, 못 찾기도 한다.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엔 사람의 추억이 담겨있다. 안 좋은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 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소중한 여기지만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한다. 한 때의 시간을 함께 한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속이 상한다. 한동안은 그 잃어버린 물건을 그리워하며 지낼 것이다. 그러다 그 물건을 대체할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고, 잃어 버린 물건을 잊고 다시 새로운 물건과 추억을 쌓아간다. 그러던 중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면 반가움과 동시에 그 때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이 책의 무대가 되는 곳은 전철의 유실물 센터이다. 이곳에는 많은 유실물이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에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고 많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차례차례 유실물 센터로 오게 된다. 그 곳에는 잘 생긴 직원 모리야스가 일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펭귄 한 마리가 함께 유실물 센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 펭귄은 혼자서 전철을 타고 근처 수족관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근처 해양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한다. 그리고는 꼭 모리야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이야기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유실물 센터에 연락을 취하면서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들어온 문의는 고양이 유골이 들어있는 유골함을 분실한 사소 쿄코였다. 유골함을 분실하긴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라며 물건을 찾아 가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 쿄코와 모리야스가 고군분투 하게 된다. 그리고 물건을 찾은 쿄코가 펭귄과 함께 유골을 뿌리며 펭귄이 쿄코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 학교에 안가고 집에만 있던 학생이 오랜만에 나와서 잊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서 학생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등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잃어버린 마음까지 찾아주는 모리야스의 모습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펭귄이 이곳으로 온 이야기가 펼쳐지며 이 책은 마무리 된다. 게임 시나리오를 쓰는 저자인 만큼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재미를 한 층 더 해주고 있다. 저자의 따뜻한 문체로 풀어 쓴 펭귄의 귀여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될 소설 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고양이와 운명

제 2장: 뽕빠레가 들려온다

제 3장: 건강해 질 때도, 거짓말을 칠 때도

제 4장: 스위트 메모리즈

<저자소개>

나토리 사와코

효고에서 태어나, 메이지 대학을 졸업 후 게임회사에서 RPG 제작을 맡았다. 퇴사 후, 프리 라이터로써 게임과 드라마 CD 시나리오 등을 만들었다.

No.20151007-002

제목: 삭스와 나의 열 가지 약속

저자: 사이토우 아카리

페이지수: 256

장르: 소설

출간일: 2008년 01월 22일



<내용소개>

어머니의 죽음을 극복하고, 애견 삭스와 함께 보낸 감동의 10년

항상 병원 일에만 열중하는 아빠와 함께 사는 아카리는 하룻길에 바닷가에서 만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반대를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고 아카리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집에 쓸쓸히 있는 날이 많아진다. 엄마가 집에 오게 된 날, 아카리는 부모님에게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되고, 강아지를 키울 때에는 강아지와 10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듣게 된다. 그러던 중 엄마는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아빠와 둘이 살게 된 아카리에게 아빠는 작은 강아지를 선물한다. 강아지의 발의 색이 달라서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모습에 아카리는 '삭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함께 지내게 되지만 아빠가 삿포로의 한 대학병원으로 전근을 하게 되고, 사택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삭스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된다. 그 동안 친구인 스스무에게 삭스를 맡기지만 스스무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어, 삭스는 마당에 묶여있게 된다. 삭스는 줄을 풀고 아카리가 살던 집에 가지만 이제 아카리는 없고, 결국 유기견으로 보호 받는 신세가 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카리의 곁으로 다시 가게 된다. 이후 아카리는 수의학을 배워 졸업 후 동물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집에는 아빠와 삭스 둘만이 살게 된다. 아카리와 아빠는 나이가 든 삭스의 임종을 지켜보며 엄마가 알려준 10가지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아빠와 함께 돌아본다.

저자가 실제로 겪은 일을 소설로 엮은 책이다. 실제 주인공인 강아지의 사진을 중간 중간 삽입되어 스토리가 더 사실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강아지와 열 가지 약속을 보게 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강아지를 함부로 다루거나 하찮게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 강아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최근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동물들도 인간과 같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는 재미보다는 하나의 생명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 것이다. 생명체에 책임을 갖고 마지막까지 강아지와 함께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포함해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책이다.

<본문이미지>



33

「……どうだい、学校は」
普通
「……そうか。普通だな」
うん
「……最近変わったことないか」
「昨日も聞いたそれ」
「……そうか」
「……そういえばな」
「ねえ、お父さん」
ん？
「なんか積極的に話そうっていう熱意がいや」
「……そうか」
「……どうして気持ちと裏腹のことをいってしまうのか、自分でもわからなかったけど、話すべきかは自分でぶつけていた気がします。」



58



3.
いうことをきかないときは、
理由があります。
叱る前に考えてください。

86



4.
私が年をとっても
どうか
見捨てないでください。

121



<목차소개>

프롤로그

11살: 엄마는 바람의 향기

12살: 초능력 개는 오이김밥을 좋아해

14살: 거짓말쟁이 아빠

21살: 마지막 약속

에필로그

<저자소개>

사이토 아카리

본명은 사와모토 요시미츠이다. 1966년에 태어나 도쿄대학 문학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덴츠에서 CM 플래너로써 CM 기획 제작을 맡았다. 크리에이터 오브 더 이어 상, 도쿄 카피라이터 클럽 최고상, 칸 광고제 은상 등 국내외의 많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주요 TV CM 작품은 도쿄가스, 소프트뱅크 모바일 '예상외의 가족' 시리즈 등 많다. 영화 '개와 나의 10가지 약속'에서 처음으로 각본을 맡았다. 동명 소설이 첫 저서이다.

No.20151007-003

제목: 일의 질을 높이는 도요타식 일의 순서

저자: (주) OJT 솔루션

페이지수: 240

장르: 비즈니스 경영

출간일: 2015년 10월 09일



<내용소개>

대기업 도요타에서 실천하고 있는 일의 순서를 정하는 노하우로 일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을 하면서 항상 마감에 쫓기듯 일을 하거나 결국 그 마감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매일 남아서 야근을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고,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위 동료들의 눈치만 보게 되고 주눅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또한, 좀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다는 점도 스트레스의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다.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야근도 잘 안하고 뭐든 잘 하는 사원은 하나 둘씩은 있다. 그 사람과 자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보지만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대기업인 도요타는 '약 1분에 1대의 페이스로 차를 생산하고 있다' 라는 소개를 받고 있다. 이런 높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도요타 생산방식'의 대표사례로 들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도요타는 이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물론 대기업이므로 좋은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겠지만 그 생산 시스템을 지탱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일을 하는 직원들의 지혜 덕분이라고 도요타는 말하고 있다. 도요타가 빠른 속도로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장에서 팔리는 속도로 생산을 하자라고 하는 회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품을 들여오는 것부터 판매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의 최단화를 전 사원이 자신들의 미션으로써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순서'를 정하는 일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단순히 빨리 일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스피드를 올림과 동시에 일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높은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원이다. 이 것을 유효하게 쓰기 위한 작업 순서를 정하는 법은 학교 등에서 최소한의 것만 것 알려준다. 이는 사회에 나와서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익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도요타에서 신입사원의 트레이닝을 맡았던 전 관리직들의 증언과 에피소드의 에센스를 추출해서 만든 책이다. 저자는 어떤 업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활용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질이 올라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이 책에 등장하는 도요타 용어해설

CHAPTER 1. 일의 성과는 '작업 순서'로 결정된다.

(작업 순서는 'HOW'가 아니라 'WHY' / 계획은 '의사 표시'이다. 등)

CHAPTER 2. '7가지의 낭비'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7가지의 낭비'에 보물이 잠자고 있다 / '무엇을 위해?'를 공유한다-가공의 낭비 / '없앨 수 없나?'라고 생각한다-너무 많이 만든 낭비 등)

CHAPTER 3. 일에 드는 '시간'을 단축한다

('표준 시간'을 만든다 / 일을 '안'과 '밖'으로 나눈다 / 일의 '안'과 '밖'을 짧게 한다 등)

CHAPTER 4. 작업 순서의 '질'을 높이는 요령

('결과'만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체크한다 / '재발방지'에서 '미연방지'로 / '멈추다'와 '멈추게 하다' / 일이 증가할 때는 '세분화' 등)

CHAPTER 5. 확실하게 실행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술

(Bad News, First! / 호렌소(보고, 연락, 상담)에 기준을 만든다 / 반대 세력에는 오히려 '상담'을 하자 / 방침은 '숫자'로 표시한다 등)

<저자소개>

(주) OJT 솔루션

2002 년 4 월, 도요타 자동차와 리크루트 그룹에 의해 설립 된 컨설팅 회사이다. 도요타에 40 년 이상 재직한 베테랑 기술자라 '트레이너'가 되어 도요타 시대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살린 OJT(On the Job Training)에 의해 현장의 코어 인재를 육성하고 변화에 강한 현장을 만들어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본사는 아이치현 나고야에 있다. 60 명 이상의 전 도요타의 '트레이너'가 소속되어 있고, 제조업계, 식품업계, 의약품 업계, 금융업계, 자치체등 여러 업종의 고객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20 만부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된 "도요타의 정리"를 시작으로 "도요타 일의 기본 대전", "도요타의 문제해결", "도요타의 육성방법", "[도감] 도요타의 정리", "도요타의 상사" 등의 시리즈는 누계 60 만부를 넘었다.

No.20151007-004

제목: 행복은 당신의 마음이 정한다

저자: 와타나베 카즈코

페이지수: 14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9월 12일



<내용소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야말로 스스로를 빛낼 수 있는 길이 있다.

괴롭고 재미없는 것을 고마운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인생의 힌트를 알려주는 책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주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을 키우며 성장한다. 자신을 형성하는 부분을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대인관이나 가치관을 정립 시켜나간다. 인간관계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계속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인간관계는 사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화를 내게 하기도 한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달라지고 성공으로도 이어진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쌓아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크게 만들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용서하는 마음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적의를 품고 살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보복운전이나 문지마 폭행 등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적대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많아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자는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용서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남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그냥 용서를 하면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후회하면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스스로는 확실히 끊었다고 생각을 해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이다. 이럴 때는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잊게 되거나 상대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오게 될 지도 모른다.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함께 소개하며 알기 쉬운 예와 함께 '용서'라는 것을 저자는 부드러운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이 밖에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의 해법이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 인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방법 등을 저자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로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 일본의 이해인 수녀님이라고 할 수 있는 와타나베 카즈코의 인생 어드바이스를 읽어보자.

<목차소개>

제 1장: 사람은 불완전한 것

(사람을 용서하면 자신도 구원받는다 /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보자 / 행복, 불행은 스스로에 따라 바뀐다 / 사회를 걸어 나가려는 너에게 등)

제 2장: 원하던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좌절의 권유 /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보며 살자 /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등)

제 3장: 자신을 내버리지 않는다

(상대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 스스로의 꽃을 피우세요 / 사랑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등)

제 4장: 빛나게 살아가는 비결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 자신을 아름답게 단련하자 /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 등)

제 5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 인간관계의 비결 / 나 이외에는 모두 스승이다 등)

<저자소개>

와타나베 카즈코

1927 년 2 월, 교육 총감인 와타나베 조타로의 둘째 딸로써 태어났다. 1951 년 성심 여자대학을 거쳐 1954 년 조치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 1956 년 노트르담 수녀원에 들어가 미국에 파견되어 보스턴 칼리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1974 년 오카야마현 문학상, 1979 년 에는 산요신문상(교육공학), 오카야마현 사회 복지 협의회로부터 제세상, 1989 년 미키 기념상을 수상했다. 노트르담 성심 여자대학(오카야마)의 교수를 거쳐 1990 년 3 월부터는 노트르담 성심 여자대학 학장이 되었다. 현재, 노트르담 성심 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No.20151007-005

제목: 한계는 당신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다

저자: Jay Abraham

페이지수: 236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4월 23일



<내용소개>

한계를 뛰어넘어 확실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행동 법칙을 알려 주는 비즈니스 실용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CEO가 되길 원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승진을 하기 원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한다. 어느 누구나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고 싶어한다. 실패를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각자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서의 성공은 누구나 꿈 꾸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치에서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누구든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원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성공한 사람들의 책만을 읽고 그 사람만을 따라 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십상이다. 각자에 맞는 성공방법이 있는데도 그저 좋아 보여 계속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법칙 등 유명한 이론들만을 믿고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겠다는 꿈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작은 액션이라도 먼저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깊게 생각하고, 자연스레 그렇게 되어있는 현실을 잘 관찰하고 '왜?'라는 시점을 가져야 한다. 당연한 것을 우직하게 실행하는 것만이 큰 성공을 잡을 수 있다는 매우 당연한 것을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주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 보고 지금이라도 '물건을 보는 방법'이나 '사고방식'의 한계를 제거할 수 있는 힌트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큰 기쁨', '존재가치', '무언가를 해 낸 것의 만족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 들일만한 인물이 되었다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인 저자의 말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저자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거짓 없이 증명해 온 것들을 통해 당신이 지배되고 있던 '멘탈 모델 (Mental Model)'이 왜 틀렸는가, 인생, 그리고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성공으로 가는 행동 법칙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좀 더 존경 받고, 신용 받고, 칭찬 받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손에 넣음과 동시에 커리어와 비즈니스의 행방을 무한대로 넓힐 수 있게 되어 인생의 주도권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 책

을 통해 매일매일이 좀 더 즐겁고, 내일이 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경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리고 가능을 실현으로 이르게 하는가

제 1장: 당신의 인생을 컨트롤 하는 것은 누구인가

(절망에서의 출발 / 당신의 성장을 제한 하는 것 / 당신 자신의 멋짐을 알자 등)

제 2장: 성공한 사람은 모두 '타인'에게 배운다

(자문자답하기 위한 노트 / 답은 '일' 안에 있다 / 코비박사에게 배운 것 등)

제 3장: 당신의 제 1의 편은 당신 자신

(많은 사람은 생각을 너무 한다 / 불행한 사건의 대처법 등)

제 4장: 왜 당신은 일을 하는가 – 오늘 해야 할 3가지를 생각해라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보다 좋게 한다 / 고객과 사랑에 빠져라 등)

제 5장: '문제 해결력'이 인생을 호전시킨다

(툼 소녀의 발상력 / 할머니의 로스트 비프 비밀 등)

제 6장: 비즈니스를 세차게 움직이게 하는 '기본원리' – 왜 이렇게 간단히 매상이 느는가

(비즈니스는 세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 /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세운다 등)

제 7장: 마케팅은 죽었다

(틀린 마케팅 / 테크닉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되돌려라 등)

제 8장: 선한 경영

(품격 격영론 / 바른 신념이 당신을 강하게 한다 등)

에필로그: 고귀하게 살자

(순수함 안의 엘레강트함 / 고귀함으로 가는 네 가지 스텝 등)

<저자소개>

Jay Abraham

1949 년 미국에서 태어난 실천 마케팅 거장이다. '포브스'지가 2000 년에 전미 톱 5 의 경영 컨설턴트에 선출되었다.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 박사에게 직접 배워 숨겨진 자산의 최대화 등으로 불황을 모르는 성장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윤리의 추진자로서 알려지고 있다.

시마후지 마스미(번역)

게이오 기주쿠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Jay Abraham 동아시아 지역 디렉터이다. 주식회사 Shimafuji IEM 의 대표이다.

No.20151007-006

제목: 한 권으로 해결하는 워킹맘의 고민 36

저자: 모리 유코

페이지수: 189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4월 23일



<내용소개>

임신, 출산부터 복귀 후까지, 워킹맘들의 고민을 가볍게 해 줄 실용서

아이를 낳은 여성은 사회생활을 접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옛날에는 상식으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바쁘고 고달픈 워킹맘들이 많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 등 사회 활동이 많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 등 과거부터 여성의 몫이었던 책임과 역할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제도는 조금씩 갖추어 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과 집안 일을 병행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워킹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출산의 두려움을 갖는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 나게 되고, 이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다양한 문제점과도 이어질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육아와 일의 양립을 고민하는 엄마들을 위한 한 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볼 수 없는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 주는 책이 될 것이다. 특히 육아보다 일을 우선시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엄마, 또는 일도 육아도 멋지게 해결해 나가는 엄마들이 될 수 없어 고민을 하는 여성들에게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충실감과 아이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기 위한 힌트를 소개 하고 있다. 저자 자신도 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실패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과 세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지식 등 자신의 경험을 총 동원 해 워킹맘들의 고민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엮었다고 한다. 임신을 했을 때 언제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육아 휴직 중에 해야 할 것,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호출을 당했을 때 회사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가 등 항목을 자세하게 나누어 하나하나 예시를 들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보고 템플릿과 유치원 체크리스트, 학교 체크리스트 등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워킹맘은 물론 많은 여성들이 활약하고 있는 회사의 총 책임자, 인사과의 사람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하를 둔 상사들에게도

참고가 되는 내용으로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해도 좋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임신인 것을 알았다면

(임신을 알았다면 언제 보고해야 좋을까? / 입덧이 심해서 회사에 갈 수 없다 등)

제 2장: 회사에 복귀한 후의 시련

(복귀 예정일에 복귀 할 수 없다!? / 보육원에서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등)

제 3장: 일을 부드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왜인지 스케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 하루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

제 4장: 아이를 키우면서 커리어 업

(아근 없이도 평가 받으려면 / 주위에 롤모델이 없다 / 앞으로의 커리어가 불안.. 등)

제 5장: 주부, 엄마로써의 일

(맞벌이 가정은 돈이 쌓이지 않는다? / 초등학교 PTA위원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해? 등)

<저자소개>

모리 유코

여성의 캐리어, 직업 전문가이다. 플렉시블 커리어의 대표이다. 대학 재학 중에 장남을 출산하고, 대학 졸업 후 대기업 감사 법인에 취직했다.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 과 일을 병행하면서 전직, 기업을 만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커리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노하우를 Web 사이트와 자신의 책을 통해서 발신한다. 스스로 기획, 집필도 하는 Web 사이트 "일하는 엄마 플러스"(주식회사 Hayakawa)는 월간 5 만 PV 를 넘는 인기사이트가 되었다. '여성이 결혼, 출산 후에도 자기다운 캐리어를 걸어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를 미션으로 일도 가정도 중요시하고 싶은 여성을 개별면담 등으로 서포트 하고 있다.

No.20151007-007

제목: 요리를 잘하는 남자는 무적이다!

저자: 후쿠모토 요우코

페이지수: 221

장르: 요리

출간일: 2015년 09월 17일



<내용소개>

최근 대세인 요섹남이 되기 위한 힌트와 요리법을 알려주는 책

3분 요리, 혹은 인스턴트 음식, 배달음식에 익숙했던 자취생들이 점차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시대가 되었다. 몇몇 남성 셰프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요리 관련 방송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를 뜻하는 '요섹남'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 내며 남자들이 요리를 하도록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기로 힘입어 요리에 관심조차 없던 남성들 중에는 요리를 시작하게 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요리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을 위해서 저자는 요리는 남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남자가 함으로써 남자의 매력을 더 높일 수 있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무적'이 된다고 한다. 남자의 요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요리가 어떻게 일의 스킬을 높여 주는지를 제시하고, 마지막엔 남자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의 레시피를 알려주고 있다. 요리의 레시피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 등 재료를 다듬는 방법부터 남자들에겐 생소한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사진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남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남자의 요리'는 인생을 바꾼다

(남자가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깝다 / 요리는 결코 어렵지 않다 -어른의 프라모델, 요리의 실험이론 / 요리로 인생은 크게 변화된다 등)

제 2장: 남자는 요리로 가꿀 수 있다.

(남자의 예절은 식사 자리에서 나타난다 / '남자의 요리'와 조리실습은 완전 다른 것! 등)

제 3장: 왜 요리가 되는 남자는 일도 잘 하는가?

(요리를 잘하는 남자는 일도 잘 한다 / 요리라면 밸런스 좋게 스킬을 얻을 수 있다 / 경영자에게 '불은 강한 불'이 많은 이유 / 잡담을 하는 힘은 요리에서 익힐 수 있다 등)

제 4장: '남자의 요리'로 주위 사람도 행복해 진다

(행복의 옆에는 반드시 '음식' 이 있다. / 요리를 하면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 중요한 이야기는 부엌에서 한다 / 사춘기 딸과 아빠를 이어 준 '남자의 요리' 등)

제 5장: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한 '남자의 요리' 마음가짐

(요령은 '간단, 호화, 즐거움' / 요리는 간단한 덧셈으로 되어있다. / 매일 하지 않아도 '요리의 감'은 무너지지 않는다 / 너무 많이 만든 것은 '어레인지'로 해결 할 수 있다 등)

제 6장: 간단, 호화, 즐거움! '남자의 요리' 실전편

(동시에 완성! 남자의 슈마이&닭찜 정식 / 남자의 주말 아침식사 / 남자 오리지널 카레 /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 / 기름 정리 법 등)

<본문 이미지>



野菜の切り方と下ごしらえ方法

焼いたり、煮たり、揚げたりするだけが料理ではありません。おいしい料理は「下ごしらえ」で決まります。まずは、野菜の下ごしらえや切り方からご紹介いたします。



<저자소개>

후쿠모토 요우코

남자요리 연구가 겸 토털 푸드 프로듀서이다. 여행회사에 근무한 후 마케팅 &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마케터로써 주방용품을 개발하거나 브랜딩, 그리고 웹에 레시피를 게재, 사하 대행 서비스 사업부의 책임자로써도 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식생활 어드바이저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10 년 남성 요리 교실 'Men's kitchen'을 시작하고 독립했다. 요리 사원연수, 강연사업, 음식관련 기업의 컨설팅이나 식당 프로듀스 사업도 하고, TV 등 각종 미디어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No.20151007-008

제목: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증후군

저자: 네모토 키츠오

페이지수: 23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09년 10월



<내용소개>

진짜 내가 아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로 사는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실감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계발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 갈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감추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려고 노력한다. 숨기고 싶은 무언가 때문에 자신을 더 과하게 치장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마치 지금 내가 그렇기라도 한 듯이 말하곤 한다. 겉모습 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남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좋은 사람일까 등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어떻게 겉으로 표출 될까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 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인간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지치게 된다. 또,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게 되어 계속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거짓된 삶을 살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위 시선에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부모의 기대를 살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아 가려는 충동을 느끼거나, 뜻에 반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힘을 쓰고 좀 더 자유로운 자신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자신을 찾는 여행이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이 것은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왜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잃고 거짓인 자신을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몸의 감각, 감정, 충동, 욕구, 소망, 꿈은 치워두고 외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욕구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자아를 "대상적 자신"라고 부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어 대상적 자신이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적 자신이 제대로 형성이 된 사람들도 있다. 저자는 무조건 대상적 자신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 온 그 가면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버리진 않아도 좋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에서 거짓된 자신을 살아가게 된 이유를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영향 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진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진짜 자신은 누구일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지금 이 삶은 어떤 삶이며, 진실된 나는 누구일까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

(‘거짓 자신’을 살다 / 대상적 자신을 사는 체험 등)

제 2장: 자아의 발달과 분열

(발달은 자아의 분열을 동반한다 / 내면과 외면과의 분열의 확대 등)

제 3장: 왜 대상적 자신을 살아가는가

(애착을 요구한다 / 부모와 아이의 불행한 관계 / 전환의 시기, 반항기 등)

제 4장: '진짜 자신'의 정체

(자기 무가치감 / 공허한 자신 / 불안, 미움, 질투 등)

제 5장: 자신이 된다는 것

(자신이 되는 과제 / 자신의 현실적 변용 / 자기신뢰 등)

제 6장: 스스로를 살자

(스스로를 알자 / 스스로를 신뢰하자 등)

제 7장: 자신의 인생을 만들자

(만족의 인생 / 자신을 사는 싸움)

<저자소개>

네모토 키츠오

1947년 치바에서 태어나 도쿄 교육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도쿄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중퇴했다. 치바대학 교수, 도쿄가정학원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도쿄 가정학원 대학 명예교수이고 전공은 교육심리학 및 성격 심리학이다.

No.20151007-009

제목: 물가의 야비

저자: 나시키 카호(글), 오자와 사카에(그림)

페이지수: 232

장르: 아동 동화책

출간일: 2015년 09월 09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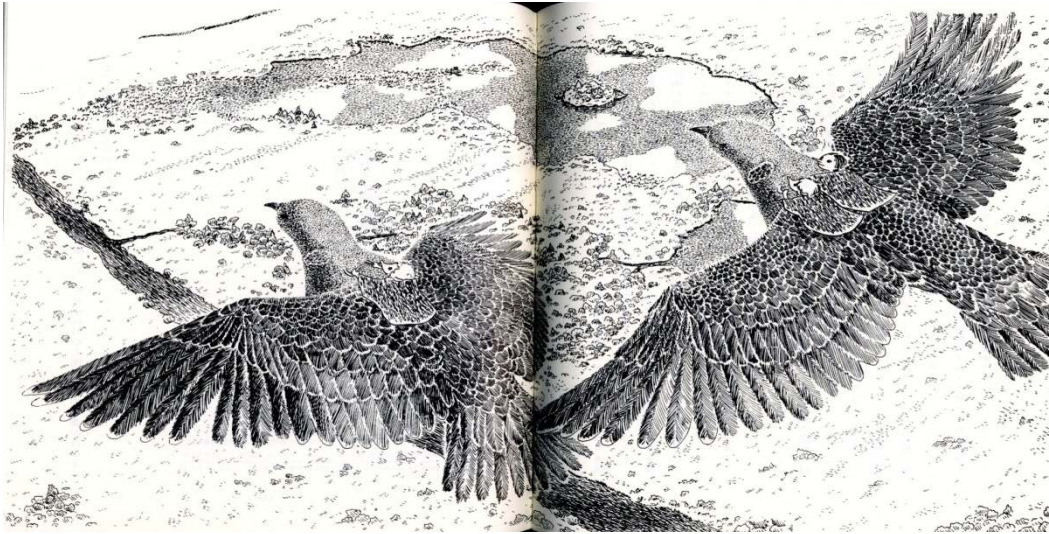
물가에서 신기한 생명체 '야비'와 만나 벌어지는 판타지 세상

매드 가이드 워터 물가에서 나는 한 생명체와 만나게 됩니다. 두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고슴도치처럼 생긴 '야비'와 만나게 됩니다.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고 얼굴 표정이 드러나는 그런 생물이었습니다. 나는 갖고 있던 사탕을 야비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야비의 첫 만남이었고 나와 야비의 교류가 시작 되었습니다. 야비는 답례로 자신과 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나 물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산비둘기를 타고 주위를 날아 다니거나,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종족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 들의 생활은 조용한 듯 흐르는 것 같으면서도 놀라움과 모험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저자가 10년간 생각해 온 물가의 생명체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입니다. 평온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묘사되는 매드 가이드 워터의 모습에 한번 가서 야비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좋을 책 이기도 한 한편, 어른들이 읽어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을 한 권 입니다. 야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것 입니다.

<본문 이미지>





<목차소개>

1. 강가에서의 만남 / 2. 밀크 캔디가 가져다 준 것
3. 야비는 나쁜 대마왕을 본 것인가 / 4. 트리카의 산비둘기들 / 5. 숨어있는 계곡
6. 안개낀 아침 / 7. 야비네 집의 티타임 / 8. 흰눈썹 지빠귀의 생활과 의견
9. 야비족이 이름을 짓는 법 / 10. 백족의 생활
11. '말하는 비오리의 옛 보금자리'의 수수께끼

<저자소개>

나시키 카호(글)

1959 년에 태어났고 현재 작가이다. 저서로 "서쪽 마녀가 죽었다", "뒷 뜰", "늪지에 있는 숲을 빠져나가서", "새와 구름과 양초가방", "바다 거짓말",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강가에서" 등이 있다.

오자와 사카에(그림)

1980 년에 태어나 교토 조형 예술대학 예술학부 서양화 코스를 졸업했다. 2004 년부터 2008 년 까지 빈 조형 예술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 대만, 홍콩에서 개인전을 열고 국립 국제 미술관에서 열리는 그룹전시회에도 참가, 일본에서는 주로 MORI YU GALLERY 등에서 전시 발표를 한다. 그림책 작품으로 "별을 가진 공주 -세르비아의 옛 이야기"가 있다.

No.20151007-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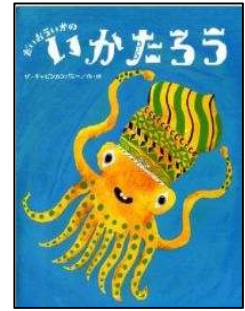
제목: 대왕 오징어 오징어타로

저자: 더 캐빈 컴퍼니

페이지수: 28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02월 20일



<내용소개>

공공 연 호수에 갇힌 오징어타로를 유치원 친구들이 힘을 합쳐 구해줍니다

어느 겨울 날, 유메타가 유치원으로 향하는 도중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신나게 수영을 하다가 얼음 호수에 갇혀버린 대왕오징어가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오징어의 말에 유메타는 유치원 친구들과 힘을 합해 커다란 포트에 따뜻한 물을 한 가득 받아와 호수를 녹여 오징어를 구해 줍니다. 오징어는 자신을 구해준 보답으로 유치원 친구들에게 오징어댄스를 알려줍니다. 오징어 댄스를 춘 덕분에 유치원 친구들의 몸에선 열기가 나와 겨울의 추위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색채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림책 입니다. 따뜻해 보이는 그림체에 재미있는 스토리까지 더해져 아이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징어를 도와주는 장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도 도와주는 책입니다. 중간에 보답으로 알려주는 오징어 댄스는 오징어타로가 친절하게 동작을 알려 주고 있고, 마지막엔 악보도 실려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즐겁게 춤을 춰 봐도 좋을 것입니다. 오징어 댄스를 함께 추며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자소개>

더 캐빈 컴퍼니

아베 켄타로와 요시오카 사키 2 인조의 화가/그림책 작가 유닛이다. 둘 다 1989 년 오이타에서 태어나 오이타 대학을 졸업 한 후, 고향 오이타를 거점으로 그림책, 일러스트, 워크샵등 여러 분야에서 폭 넓게 활약하고 있다. 그림책으로 "밤 입니다", "물음표 박사의 기묘한 생물 도감", "훈훈한 학교"등이 있다.

< 본문이미지 >

